



답사단이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에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창림사지 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큰 탑으로 7m에 달한다.



경주 남산 아래 위치한 포석정. 연회 장소만이 아닌 종교적 성소로 이용했음으로 추정된다.



남간사지 당간지주. 남산의 사찰과 사지 중 유일한 당간지주다.



우천에도 많은 답사객들이 참석했다.

경주 남산서 신라의 '시작과 끝' 을 만나다

신라 시조의 탄생과 유상곡수의 흔적들

올해 4월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럽다. 만개한 봄꽃을 시샘한 듯 4월의 첫 주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신라문화원의 경주남산불적답사도 안전을 우려해 남산에 산재한 불상을 돌아보는 것에서 신라의 시작과 끝을 살피는 것으로 코스를 변경했다.

나정에서 동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신라 건국을 도운 6부 손장들의 위패를 모신 양산재가 있다. 전형적인 재실 건물으로 지어진 이 사당은 1970년대에 세워졌다.

흔적만 남은 남산 절터들

나정과 양산재를 돌아 나오면 적지 않은 남산 아래 절터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부근 사찰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남간사와 창림사다. 현재 남간사는 마을이 들어서 건축의 규모나 기법배치 등은 알 수 없지만 당간지주를 통해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물 제909호로 지정된 남간사지 당간지주는 남산 지역에서는 유일한 당간지주이다. 통일신라 중기인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논 한가운데 있었던 것을 최근에 유적으로 정비했다. 이 당간지주는 단순한 형태이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십자형의 간구(竿溝)가 있고 몸체에는 두 곳에 동그란 구멍이 나 있다. 특히 십자형 간구는 다른 당간지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것이다.

남간사지 옆 신작로를 따라 10여 분을 걸으면 창림사지를 만날 수 있다. 창림사는 남산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석탑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쌍두귀부와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출토됐으며, 2011년에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창림사지 석탑의 원기인 '국왕경음조무구정탑원기(國王慶應造無垢淨塔願記)'를 발견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원기에는 문성왕이 대중(大中·당나라 연호) 3년(855)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탑을

세우니 그 공덕이 널리 미치지 바라다"는 발원문과 탑 조성에 관여한 승려와 관리 명단이 담겨 있다.

《삼국유사》에도 창림사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혁거세와 알영 왕비가 태어난 후 이곳에 궁궐인 금성을 지어 13년 간 살았다"는 기록돼 있다. 이 같은 기록들을 통해 창림사가 당대의 명찰로서 그 위용이 대단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창림사에서 주목해 봐할 곳은 바로 삼층석탑이다. 7m에 달하는 그 크기도 놀랍지만, 더 눈길을 끄는

남산 아래 위치한 나정·포석정

천년 신라의 始終을 담아내

포석정, 단순 연회장소 아냐

무수한 유구만 남은 창림사는

혁거세가 머문 금성으로 추정

것은 탑 하단에 부조된 팔부신중들이다. 현재는 8개의 도상 중 절반이 결실돼 이수라, 마후라가, 천, 건달바만이 남아 있다. 모두들 구름을 타고 천의를 날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풍부한 양감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최민희 신라문화연구원 부설연구소장은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더불어 한 구의 탑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림사 삼층석탑 원기에는 탑의 조성 시기를 855년으로 기록하고 있어 탑의 조성연대를 이 시기로

잡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추정입니다. 9세기 중엽의 신라 조각은 쇠퇴기여서 이 같이 풍성한 양감의 조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팔부중을 새긴 상층기단 면석이 세 구가 발견됐는데 현재의 탑의 면석보다 작고 조각 기법이 9세기에 가까웠습니다. 창림사지에는 팔부신중이 조각된 쌍탑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어찌 됐던 왕가의 영광과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세워진 창림사는 제일의 위용을 자랑하는 탑을 통해 불국토 남산의 서쪽을 장엄하고 있었을 터이다.

포석정에 가기 전 유네스코세계유산(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5호)을 찾았다. '기' 자로 찍인 암벽에 3구의 불상을 새겼다. 중앙불 왼쪽에는 '태화 9년 을묘'라는 명문이 있어 혁거세 10년(835)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약함을 든 약사여래가 2명이 조각돼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경주 남산은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곳이라는 점만 다시 확인할 뿐이다.

'승자의 역사'가 남긴 오해들

마애불을 보고 포석정으로 내려오니 비가 조금씩 찾아온다. 포석정은 수로를 굴곡지게 하여 흐르는 물위에 술잔을 띄우고,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 시를 한 수 읊는 놀이인 '유상곡수연'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포석정은 신라 말기의 예향과 치욕이 담긴 곳으로 더 유명하다.

《동국통감》에는 "경애왕(景哀王) 4년(927) 왕이 신하와 공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견훤군이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 왕비와 함께 성남의 이궁에 숨었다. 그러나 곧 견훤에게 잡혀 경애왕은 자진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승자 위주로 쓰여졌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려시대에 쓰여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신라가 말할 수 밖에 없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점을 후대에 인지시켜야 했고, 경쟁자인 후백제의 건국은 상대적으로 포악한 인물로 남아야 했다.

실제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포석정이 단순히 연회를 즐긴 곳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경애왕이 포석정에 행차한 것은 음력 11월경으로 양력은 12월에 해당하는 시기다. 얼음이 어는 겨울에 유상곡수연을 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은 상식에 가깝다. 또한 이미 9월에 견훤이 영천까지 침입한 사실을 알고 왕궁에 도움을 청한 경애왕이 술잔치를 벌일 정도로 폭군이었던 후대의 경순왕과 신하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며 애절히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리도 만무하다.

최 소장은 포석정이 단순히 연회를 베푸는 이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포석정의 행사에 왕과 비빈, 종족, 화랑이 참석했고 가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상곡수를 하는 연회 장소가 아닌 종교적 성소로 활용됐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포석정이 신라 왕실의 이궁이라는 견해도 재고의 여지가 많습니다."

답사를 마치니 찾아졌던 빗줄기가 다시 끊어졌다. 비를 맞은 빗물들이 길가에 내려왔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도 마지막은 흐드러지는 봄꽃과 같았다. 굴곡 많은 인간사처럼 굽이진 포석정이 애처로울 뿐이다. 경주남산·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신라문화원 5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일정

- 주제 : 선도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 일시 : 5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사차원운명단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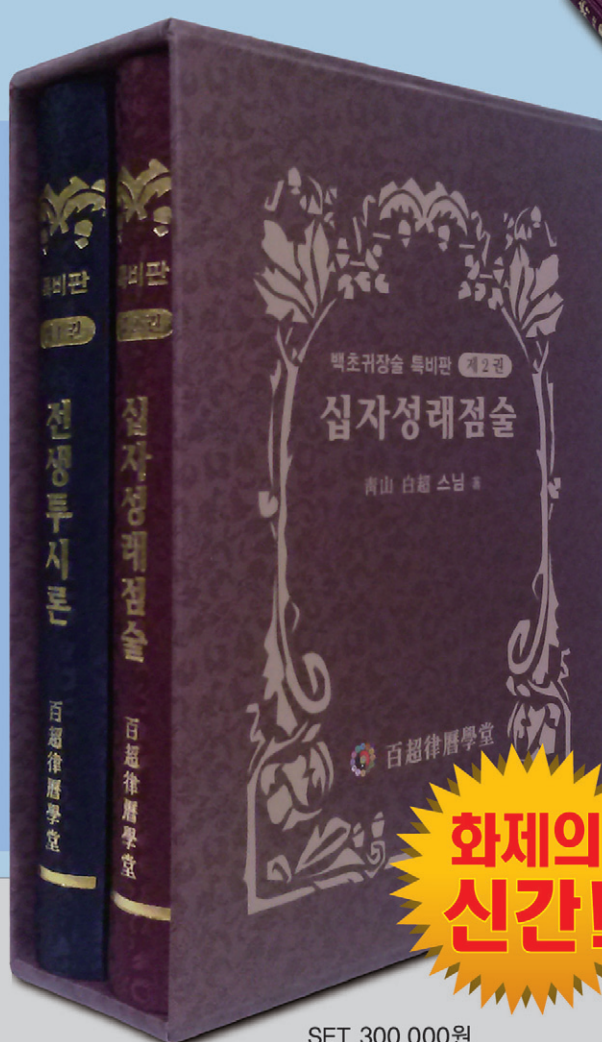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SET 300,000원

화제의 신간!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